

경기장 인프라, 동계올림픽 이후 활용 방안 제대로 마련해야

– 경기장 시설물의 사후 활용 방안 미흡, 상암월드컵경기장 운영 사례 눈여겨볼 만 –

김윤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yjkim@cerik.re.kr

20 18년 2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100여 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이기도 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번의 실패를 딛고 칠전팔기(七顛八起) 정신으로 재도전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2011년 7월에는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뻐하였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6년 2월, 강릉에서는 올림픽 개최 G-2년을 맞아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고, 신설 경기장 중 첫 테스트를 받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합격점을 받으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 중인 강원도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경기장 및 주변 인프라 건설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과 대회

이후 시설물들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월드컵대회 등) 사례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장 등 사후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한 교훈을 얻어 보고자한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 지자체 재정 압박 불 보듯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과 강릉, 그리고 정선의 총 13개 경기장에서 열리게 된다. 이 중 6개는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고 나머지 7개 경기장(개·폐회식장 포함)은 새로 건설된다. 이 밖에 경기장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철도, 그리고 관광객 및 선수단을 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8조 8,000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는 1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올림픽 개최까지 아직 2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완료까지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18%로, 광역도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30%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현재는 평창올림픽 등 몇몇 대형 사업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은 물론 대회 준비로 투입된 막대한 비용으로 부채비율도 높아져 향후 강원도는 부채 상환 및 대규모 시설의 사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재정 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는 평창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축되는 7개의 경기장 중 일부 경기장에 대해서만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마저도 미비한 실정이다.¹⁾ 이제라도 강원도는

앞서 개최된 나가노동계올림픽²⁾ 혹은 밴쿠버동계올림픽³⁾의 실패를 답습하기 않기 위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애물단지 혹은 보물단지

다음의 <표 2>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 경기장의 운영 현황⁴⁾으로, 각 지역 경기장별 총사업비와 대회 종료 후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역에 건설된 10개의 월드컵 경기장은 대부분 부대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축구 전용구장으로 전체 사업비 약 2조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월드컵 대회 종료 후 경기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해 왔다.

표에 제시된 이들 경기장의 경영 상태를 살펴보면 각 경기장들은 해당 지자체의 애물단지이거나 혹은 보물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시설 운영을 통해

<표 1> 평창올림픽 주요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안

경기장명	소유권	예산(억원)	관리 주체	사후 활용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원도	1,241	한체대	경기장·훈련장 및 체험 시설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원도	1,723	-	체험형 레저시설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원도	1,305	강릉시	시민종합체육시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강원도	940	강원도	1만 5,000명 규모로 축소 후 공연장 활용

자료 : 조선일보 2016. 1. 4일자 기사 참조.

1) 올해 2월 25일자 '건설경제' 보도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12개 경기장 가운데 현재까지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 주·보조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4곳이다.

2) 199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나가노에서는 약 29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올림픽을 치른 후,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채 및 막대한 시설 유지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했던 동계올림픽에 약 8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림픽을 치른 후 약 5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부채로 인해 밴쿠버 시민은 삶의 질 저하에 시달리고 있음.

4) 총사업비, 수용 규모 등 경기장 기본 정보는 위키백과사전을 참고하였고, 경기장별 순이익은 2011. 3. 4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를 참고함. 최근 들어 경기장별 순이익 구조에 변화가 생겼는데, 2014년 기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순이익은 19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제주월드컵경기장 순이익은 -4억 7,0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커져 경기장별로 차이가 나타남.

〈표 2〉 2002년 월드컵 10개 경기장 운영 현황

구분	경기장	총사업비 (억원)	수용 규모(명)	시설 활용 현황	경영 상태(억원)			비고
					수입	지출	수익	
1	상암월드컵경기장	2,060	66,806	국내외 대회 임대, 풋살, 부대시설 등	179	81	98	아시아최대, 축구 전용
2	인천문학경기장	1,252 (3,266)	축구 : 51,237 야구 : 30,000	대회 임대, 부대시설 등	37	52	-15	종합 경기장
3	수원월드컵경기장	3,107	44,031	국내외 초청 대회, 실내 수영장, 컨벤션센터 등	78	67	11	축구 전용
4	대전월드컵경기장	1,439	42,176	종합 스포츠센터, 상업·문화시설	5	20	-15	축구 전용
5	대구스타디움	2,674	66,422	대관, 부대시설 등	5	33	-28	종합
6	전주월드컵경기장	1,331	42,477	종합 스포츠단지로 구성	35	28	7	축구 전용
7	부산월드컵경기장	2,269	55,982	체육 및 사회교육장	33	20	13	다목적 경기장
8	광주월드컵경기장	1,588	40,245	대관, 부대시설(마트) 등	54	19	35	종합 경기장
9	울산문수축구경기장	1,514	43,003	대관, 부대시설 등	16	28	-12	축구 전용
10	제주월드컵경기장	1,251	29,791	대관, 부대시설 등	1.4	2.9	-1.5	축구 전용
	계	18,485 (20,499)			443.4	350.9	92.5	

연은 수입과 지출을 합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살펴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을 포함한 일부 경기장들은 흑자를 기록하며 모볼단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외의 경기장들은 예상대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 특히 일부 경기장들의 경우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들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 즉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경기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도심이 아닌 외곽에 건설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운영 수익보다는 시설물 유지를 위한 막대한 관리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축구 관련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 운영 주체도 비전문적이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도 이러한 경기장들이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

락하게 된 요인이 되고 있다.

상암경기장 운영 사례 눈여겨볼 만

위 사례에서 평창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운영 사례로서, 평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암경기장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부지 확정 시기부터 경기 이후를 대비하여, 서울 서북부 지역의 상권을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고, 경기장의 부대시설 규모 및 업종까지 사전 선정하여 설계도에 반영하였다.

즉, 경기장 3층 스탠드 아래 1, 2층 공간에 ‘월드컵 몰’ 및 대형 할인점, 10여 개의 상영관을 갖춘 복합 영화관,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입점시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 국제/국내 경기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오페라 및 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의 경기장 등 시설물 활용 방안은 대회 운영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분석 없이 지나갈 경우 이러한 시설물들은 막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당 지자체들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최 등 대형 공연도 유치하여 최고의 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임 경영을 도입하여 매년 초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이 밖에 e-스포츠를 유치하는 등 미래 수익 구조 창출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상암경기장 이외에도 수원 및 광주, 부산의 경기장들도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임대 수익 외에 국내 최초로 잔디 보호용 매트를 제작, 대형 콘서트 등의 유치와 함께 각종 편의시설들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는 대형 마트 등 주민 편의시설과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 운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각종 스포츠·문화 복합 공간 마련을 통해 '공익과 공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평창, 보물단지 넘어 황금거위가 될 수 있다

평창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앞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선행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고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언론에서도 이전 국제대회 사례를 제시하며 평창올림픽의 개최 이후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왔다.

이제 강원도가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와 사후 활용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들 경기장 및 주변 시설물들은 보물단지 혹은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상암경기장의 사례에서와 같이 경기장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관리 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한다면 지방 재정 확충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평창은 강원도의 보물단지를 넘어서 황금거위가 될 수 있다. CERIK